



8월 ISM 제조업지수, 3개월 연속 하락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9월 4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는 8월 제조업지수가 49.6으로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자동차 수요 증가가 제조업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.

- 8월 제조업 지수는 7월 49.8보다 0.2포인트 하락하였으며, 전문가들의 예상치 50.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냄.
- 제조업은 지난 3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아시아와 유럽 경기가 악화되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.
- 8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47.2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신규주문과 고용지수도 각각 47.1과 51.6으로 하락함.
- 한편, 대표적인 자동차기업 크라이슬러와 포드, GM 등의 8월 자동차 판매가 각각 14%, 13% 1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, 자동차 수요 증가가 제조업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제조업 경기 악화는 높은 실업률에 따른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됨.

- 상무부에 따르면 2/4분기 가계지출은 연율 1.7% 증가에 그치면서 연중 가장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기업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도 2009년 3/4분기 이후 가장 낮은 4.7% 증가에 그침.
- 유로지역은 3분기 연속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, 2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가 미국 제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상무부에 따르면 7월 건설 지출도 리모델링 지출이 5.5%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(Bloomberg, 9/6)